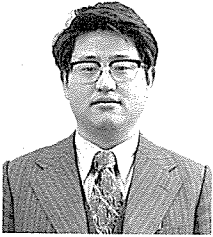


# 여름철 魂魄 이야기



崔東植  
(고려대 화학과교수)

더위가 기승할 때면, 낱량 특집물로 귀신 이야기가 제격인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괴기물들을 방영하곤 했다. 그러나, '전설의 고향', '천녀유혼', '사랑과 영혼', 'X 파일', '제 3의 눈', '은행나무 침대' 등,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작품 속에서 영혼과 귀신, 외계인과 악령, 죽음과 윤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제각기여서, 잠시 더위를 잊으려다 옳은 개념의 정립은 커녕, 무지와 혼란의 악영향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말에 혼나고 나서 도망갈 때, 또는 크게 겁먹거나 깜짝 놀라 도망갈 때, '혼비백산'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글자 뜻 그대로 혼은 가벼워서 날 수 있고, 백은 무거워서 부서지면 흩어진다. 또, 혼백에 대해선 '삼혼칠백(三魂七魄)'이란 고사 성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서 삼혼(三魂)이란, 유, 령, 혼의 셋을 이르는 것으로, 그 순서대로 가벼운 존재가 된다. (서양에서도 astral, mental, causal의 분류를 한다.)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정신, 사고의 본체인 혼의 피부가 영이고 이 영혼의 속옷이 유인 것이다. 양파처럼 혼, 영, 유체는 육체란 껍질, 즉 겉옷을 걸치게 되는데 이러한 존재를 인간이라 부른다.

##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

인간이 죽으면 유체가 영혼을 싣고, 몸(육체)을 떠나게 되고, 보통은 유계로 가게 된다. 그러나, 유체라는 속옷도 벗은채 영혼만 영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성철스

님처럼 유령을 남기고 혼체만 혼계로 가는 분들도 드물게 있다.

그렇다면, 백(魄)이란 무엇인가? 유체보다는 무겁고, 육체보다는 가벼운 접촉체와 같은 존재이다. 이魄은 정신, 의지, 마음 감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칠정(七情)의 지배를 받는다 해서 칠백(七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 많은 종류의魄을 음양오행 7가지 성질의 조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七魄이라 부를 수도 있다.

이魄에 대한 사전의 설명을 들어보면, ① 혼, 녀, 정신 ② 정력, 패기, 기력 ③ 달의 표면에서 빛이 없는 어두운 부분 ④ 음력 초사흘날의 달(빛)이라 되어 있다. 서양의 같은 뜻을 갖는 Ether에 대해 웹스터 사전의 해설을 보자.

1. a : the clear sky : HEAVEN, AIR, b : the element formerly held to from the material of the heavenly spheres and bodies from the moon to the fixed stars, c : the upper regions of space or the rarefied element formerly held to fill these regions : EMPYREAN

2. a : a medium of unusual quantities postulated in the undulatory theory of light as permeating all space and as transmitting transverse waves, b : the medium of transmission of radio waves

## 3. 4. 생략

바로 우리 사전의 뜻과 같은 외에, 진공 속에서도 존재하며, 빛이나 전파가 전달

三魂七魄의 고사성어를 보면  
정신, 사고의 본체인 혼의 피부가  
영이고 이 영혼의 속옷이  
유라고 한다.  
양파처럼 혼, 영, 유체는 육체란  
껍질, 즉 겉옷을 걸치게 되는데  
이러한 존재를 인간이라 부른다.  
인간이 죽으면 유체가 영혼을 싣고  
몸(육체)을 떠나게 되고  
유계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백(魄)이란 무엇인가.

되게 하는 미디어, 즉, 가벼운 매질이 바로 '에텔'이며, '魄'이란 것이다. 이魄은 누구나 한번쯤은 집중하여 수련하면, 어렵פות이 볼 수 있다.

사람의 유체(속에 영혼이 있는)는魄을 접착제(?)로 하여 육신(肉身) 속에 붙어있다.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육신을 떠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 애착, 한이 많은 존재일수록, 백을 많이 붙여 가지고 간다. 따라서 자살, 타살, 사고사를 포함, 전사에 이르기까지 죽은 뒤에도 이 세상을 떠도는 원혼을 많이 만들어 낸다. 즉,魄을 완전히 떨어 버리기 전에는 혼이 유계로 갈 수 없어 현실계와 중음계를 떠돌게 된다. 모든 종교가 자살이나 살인을 똑같이 죄악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일반적으로 제 수명을 늘어서 다하거나, 병으로 다하는 경우 체념도 이미 되어 있고, 내세에 대한 바람도 있어 유체나 영체가 비교적 빨리 유계나 영계로 가버린다. 보통은 사후 49일 정도 지나야, 유체와 에텔체의 분리가 완결된다. 그러나 평소에 전생이나 내세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 갑작스레 죽으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채 이 세상과 중음계를 헤매며 괴로워하거나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 특히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강이나 냇물 같은 곳에서 익사, 심장마비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 다리나 절벽 등 자살 빈도가 높은 곳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아예 머물거나 자주 나타나는데, 이름하여 지박영(地縛靈)이라 한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존재들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나 자살을 유도하는 짓거리를 서슴치 않는다.

그래서 마을에서 굿을 하거나 신부나 스님 혹은 도인을 모셔와 원혼을 천도

시켜,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곤 한다.

간혹 고승이나 도인들이 좌탈(앉아서 유체가 육신을 떠남)할 때는魄을 대부분 육신에 두고 떠날 뿐만 아니라, 유체와 영체를 남겨두고 혼체만 혼계로 가 버린다. 이때 혼이 빠진 유령체는 프로그램이 지워지지 않은 로봇처럼, 이 세상에 잠시 존재하는데, 만일 사람들이 존경, 숭상하여 소원을 빌면 오랫동안 존속하기도 한다. 특히, 관운장, 제갈량, 최 영, 이성계 등 사당이 있거나, 묘가 있어 제사를 자주 지내고 사람들이 치성들이고 소원을 빌면, 영험한 이적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공동묘지에 가면 영계로 간 존재들이 벗어던진 유체가魄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흩어지지 않은魄체들이 돌아다닌다. 보통 유령이니 귀신이니 부르지만 실은 이러한 곧 사라질 존재들이 일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다.

어떻든 육신을 떠난 뒤 유계나 영계로 가지 못한 여러 형태의 혼백은 현생때의 습관대로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쉬어야 한다. 따라서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거나, 고수례, 헌식을 할 때 나타나서 축식을 하게 된다.

### 공동묘지 귀신의 正體는...

즉, 보거나, 냄새맡거나, 만지거나, 핥거나 하여 음식물 속에 남아있는 에텔체가 뿜혀 나간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볼 수 있거나 아는 분들은 제사음식이나 불전에 올렸던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다. 이러한 능력, 즉 에텔체를 볼 수 있고, 혼백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뱀이나 개를 많이 먹은 사람의 몸에 뱀과 개의 에텔체가 섞여 있음을 감지해 낸다. 소위 부정탄 사람이 있다 하며, 임신 혹은 이성과의

교접 여부에 민감한 무당들은 두 사람 이상의 에텔체들이 섞여 있음을 알아내는 것이다. 또, 이 에텔체로 만들어진 칼이나 화살이 꽂혀있는 사람을 척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게 없으면 무척 좋다고 한다.魄은 칠정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남을 원망, 저주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척들은 꽃힐 데가 없거나, 상대가 죽어서 없어지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즉각 되돌아오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한다.

할머니 손이 왜 약손이겠는가. 눈에 집어넣어도 안아플 것 같은 귀여운 손주. 평범한 아낙네들도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껏 보살피는 아이들에겐 그 손이 약손이 되는 것이다.

성자의 신유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가 그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치유될 까닭이 없다. 이러한 마음, 염력, 정신에 의해 효력이 나타나는게 에텔체가 매개하는 치료의 특징이다.

금속침에 에텔체를 많이 포함한 약초가루나 돌가루를 문혀 경혈, 경락에 시술하거나, 그러한 약품을 포함한 물질을 지압 테이프에 해당 경혈을 눌러주거나, 그러한 물질이 내장된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착용함으로써 치료도 가능하다. 사람의 몸 밖에서 관측되는 에텔체의 색과 발산의 크기를 보면 석달 후의 몸 건강상태를 미리 알 수 있다.

서구의 여러나라에서도 MRI나 중성자 CT보다 더 나은 이 생체에텔(오라라고 부른다)측정기기를 써서 암 예방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다툼은 변증법적 유희론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에텔체의 기계적 측정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⑧7